

[붙임1]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양식 1부.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책과 함께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4년 4월 11일(목요일) / 장 소 : CLC 4층 스터디룸							
<b>참석자 명단</b>	학번	2024*****	이름	이*윤	학번	2024*****	이름	권*운
	학번	2024*****	이름	이*담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b>참석인원</b>	3명							
<b>선정도서</b>	김동식, “회색인간”(2017)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p>[진행 도서] 회색인간</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1. 책의 핵심 내용 요약하기</p> <p>이*담: &lt;7장. 디지털 고려장&gt;에 나오는 ‘가상현실 이주 계획’은 현실의 늙고 병든 부모를 가상현실로 이주시켜 살게 한다는 계획이다. 도입 초기 이 계획은 비인륜적인 행위라고 대중의 비난을 받았지만, 부모님의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을 언제나 볼 수 있다는 장점에 대한 인식이 더 크게 주목받는다.</p>							

정부의 이 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든다. 이야기 속 김남우 가족도 디지털 고려장을 두고 가족 간에 마찰을 빚는다.

**권\*윤:** 가족 가상현실 이주 계획은 현실의 늙고 병든 부모를 가상 현실로 이주시켜 살게 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뇌 스캔이라는 과정을 통해 현실에 있는 가족들이 업데이트를 해야 했다. 물론 비용 역시 많이 들어 뇌 스캔을 2~3년 간격으로 미루는 가정들이 늘어나며 문제가 되었다. 주인공 김남우는 가상현실 속 자신의 아버지를 뇌 스캔하는 것에 대해 가족들과 갈등을 빚는다. 김남우의 아버지는 생전에 알콜 중독자였으며, 김남우는 아버지를 가상 현실로 이주시킨 일로 아버지와 크게 다투었다. 하지만, 김남우 역시 아버지와 똑같이 알콜중독자가 되어가는 자신을 혐오한다. 이후 주인공 역시 가상현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암시가 드러나며 소설이 끝난다.

**이\*윤:** <7장. 디지털 고려장>에서, 정부는 비노동 인구인 노인들을 요양원이나 노인정이 아닌 가상 지구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친다. 도입 초기 이 정책은 ‘디지털 고려장’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대중의 질타를 받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상 이주 시스템의 이용은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는다.

## 2. 토의하기

**토의① “회색인간”의 단편 소설 <6장. 손가락이 여섯 개인 신인류>를 읽고… 인간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권\*윤:** 인간의 유전자 변형은 자신이 원하는, 혹은 좀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유전자를 자신의 특정 유전자에 접합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전자 변형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보다 더 큰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유전자로 인한 계속된 차이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 인륜적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 없이 부모의 욕심으로 유전자 조작을 받는 경우, 이는 도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담:** 저는 인간의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변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천적인 질병이나 불치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 변형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유전자를 부모의

의도에 따라 우월한 유전자로 만드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동물은 이미 존재하지만, 이것들은 몇 세대에 걸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지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세대를 걸쳐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는 노릇이고 유전자 편집 기술이 남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위험성 또한 존재합니다. 무분별한 유전자 변형은 인간의 생명 경시 풍조를 일으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인간의 유전자 변형은 치료 목적 외에는 이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 저는 인간 유전자 변형에 반대합니다. 인간 유전자 변형은 신체적 결함이나 외모적인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유전자를 변형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부모들은 자식의 유전적 결함이나 외모를 바꿔주지 못할 것이고, 이것은 후에 또 다른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일으킬 것입니다. 인간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 보완된 것들을 활용하여 운동선수가 되거나, 외모를 주로 내보이는 연예인이 되면 변형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반복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토의② “회색인간”의 단편 소설 <7장. 디지털고려장>을 읽고… 가상 세계의 노인들의 삶을 과연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권\*윤:**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 속에서의 사이버 고려장과 비슷한 내용의 단편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모두가 사이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한 인물이 사이버의 요양원으로 아버지를 보내려고 하고 아버지는 이를 거부합니다. 그때 누군가 아버지는 사이버를 연결하는 통로를 끊고, 어머니와 둘이 도망가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내용을 사이버 기계에 입력하여 본인이 원하는 여생을 꿈꾸는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세계 역시 충분히 인간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소설 속 가상 지구로 이주한 노인들의 삶은 ‘인간의 삶’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 속 노인들은 가상 지구 밖 자식들이 ‘뇌 스캔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평생 같은 모습을 보며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본인의 의지대로 사는 것일까요? 완벽한 가족 아바타가 되어서, 자식들

이 보고 싶을 때 켜지고, 충분히 부모들을 본 것 같을 때 꺼지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대우보단 가정 전자제품의 대우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개인들이 짊어질 노인 부양 문제 해결되고 생물학적 유지비가 소멸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 회차의 뇌 스캔 비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또한 사람이 죽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언제까지 뇌 스캔을 진행할 것인지, 언제까지 아바타를 유지할 것인지 아무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뇌 스캔을 매년 실행하지 않는다면 노인들은 가상 세계 속에 갇혀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타인의, 그것도 가족이 죽을 시기를 내킬 때 정한다는 것은 기괴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설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매년 뇌 스캔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뇌는 어딘가에 있을 것인데, 과연 노인들의 육체는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이\*담:** 저는 가상 세계의 노인들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현실 속 노인들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데이터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주지 않는다면 가상현실 속 사람들은 평생 그 시간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게임 속 세상에 갇힌 것처럼 말입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가상현실 속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상현실 속 행복은 인간의 삶을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기억만을 주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세계 속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김남우의 모습만 봐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남우가 가상현실 속에서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다면, 과연 가상현실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싫어했을까요?

**토의③ “회색인간”의 단편 소설 <7장. 디지털고려장>을 읽고…소설의 세계관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노인 부양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권\*운:** 소설 속 세계관은 지금보다 첨단 과학이 더 발달한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먼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노인의 비중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많은 노인 부양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이버 고려장 이외 노인 부양 정책들은 지금보다 늘어난 노인 부양비와 줄어드는 청년층의 간극에서 잘 타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으로는 일단 지금보다 정년 나이를 늦추든지 정년의 제한을 없게 하는 등의 노인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한다. 미래에는 노인들의 인구 포함 비율이 급등할 것이고 또한 평균 연령 역시 크게 늘 것이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고

용 및 일자리 보장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 연금의 변화도 필요하다. 지금의 국민 연금은 평생 연금을 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령할 나이인 60~70대 이상이 되어 수령하게 되면 월 100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적은 양이 지급된다. 나는 이 국민 연금을 폐지하거나 변경해서 노후 대비를 좀더 잘 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새로이 생각할 수 있는 정책보다는 여러 채널의 다양한 선진국의 사례라던지 공청회나 국민적인 건의나 제안을 받아들여 보다 실천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 미래의 노인복지는 개인적인 필요를 공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는 편안함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누구나가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 품앗이로 생각하고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이\*윤:** 소설 속 세계관은 현대 사회와 비슷하게 노인 부양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와 다른 점은 소설은 첨단 과학기술이 매우 발전한 미래라는 점입니다. 상상해 봤는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형태가 지금과 비슷하면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환자를 씻겨주고 밥을 먹이는 간호 기계가 존재하거나, 의사가 여러 사람의 건강 상태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료 보조 장치가 개발된다든가. 여러 발명품이 쏟아질 것 같아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집에 가상스크린을 설치하여 영상통화처럼 보고 싶을 때 전화를 걸어 대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설의 노인 가상 지구 이주 정책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이\*담:** 이 이야기의 배경 세상은 인간이 포화상태까지 도달할 먼 미래의 이야기이므로 미래 세상에서는 과학기술과 의료 기술 또한 극도로 발전한 상태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평균 수명도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고 확실히 노인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같은 노인이라도 건강 상태나 재정 상태 등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노인을 부양만 해야 할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살아갈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공간과 편의시설 또한 확충해야 할 것이다. 꼭 부양과 요양원, 책에 나오는 디지털 고려장만이 노인 증가 문제의 해결책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노인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 3. 인상 깊었던 장면 공유하기

**이\*담:** 자신의 아버지를 가상현실로 이주시키고 소홀히 대하다 딸에게 자신은 가상현실 세계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김남우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부분에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생길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정작 자기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이기적으로 구는 인간의 모습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다.

**이\*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딸은 김남우를 가상 지구에 잘 모실거라는 딸의 당당한 모습에 김남우는 충격 먹는다. ‘디지털고려장’의 이용자들은 부모를 이주시키고 부모 부양을 등한시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간접적,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이것은 본인의 자손들에게 고려장 시스템을 되물림하는 것이다. 본인의 편의를 위해 ‘디지털 고려장’ 시스템을 소비하면서도, 자신은 ‘디지털 고려장’ 세상에 편입되고 싶지 않은 모순된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느꼈다. 사실 나는 그 다음 장면에서 나는 김남우가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그때부터라도 가상 지구에 계신 아버지를 잘 모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딸의 당당한 대답에 깨닫고 충격받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2년이 지났음에도 아버지의 뇌 스캔을 갱신하지 않았다. 딸이 대학에 진학하여 핑계거리가 사라졌어도 돈이 없다고 뇌 스캔 갱신을 무시한다. 이 부분에서 작가가 현대 사회의 부모 부양 문제를 잘 꼬집었다고 생각했다. 이런 장면들은 현실에서 부모 부양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한다.

**권\*운:** “회색인간”이라는 단편 소설집을 읽고 난 후 처음 든 생각은 소설가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우려점, 혹은 미래에 있을 법한 현실을 잘 풀어낸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중에 나는 디지털 고려장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었는데 결국 이 디지털 고려장의 내용이 나의 아버지 혹은 내가 노년이 돼서 겪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몰입하면서 읽은 것 같다. 또한 빠르게 발달하는 과학과 인간, 그중에서 노인 소외라는 사회적 주제를 잘 엮어서 쓴 글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손가락이 6개인 신인류가 기억에 남는데 손가락이 6개의 신인류를 만듬으로써 우리가 장애인이나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 참신한 주제를 잘 활용한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다.

2024년 4월 11일

참가자대표 : 이\*윤

[붙임1]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양식 1부.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책과 함께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4년 4월 18일(목요일) / 장 소 : CLC 4층 스터디룸							
<b>참석자 명단</b>	학번	2024****	이름	이*운	학번	2024****	이름	권*운
	학번	2024****	이름	이*담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b>참석인원</b>	3명							
<b>선정도서</b>	호프 자런,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2020)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p>[진행 도서]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1. 책의 핵심 내용 요약하기</p> <p>권*운: 저자인 호프 자런은 이 책으로 여러 사회문제를 설명하고 있다.이 책은 현대 문명이 어떻게 기후 위기에 도달했는지,,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책은 우선 기후위기의 역사적 배경</p>							

과 기후 변화의 원인, 환경 파괴의 결과, 개인과 사회의 역할, 개인과 사회의 역할, 미래를 위한 제안의 5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으며, 역사적 배경으로는 인류가 산업 혁명 이후 어떻게 에너지와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소비 문화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기후 변화의 원인에서는 화석 연료, 농업의 산업화, 벌목, 도시화 등의 과정이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한 기후 변화의 과학적 원리를 다룬다. 환경 파괴의 결과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설명한다. 특히 이 변화들이 인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개인과 사회의 역할에서는 개인의 행동 변화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또한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과 정부, 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제안으로 과학적 연구와 교육, 국제적 협력,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이\*담:** 이 책은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 고찰하는 책이다. 책 속에서는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과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전달하면서 우리 모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단순히 기후 변화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실천적인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음으로서 미래 세대가 직면할 문제들을 강조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마친다.

**이\*윤:** 이 책에서 저자는 더 많이, 더 빨리 소비하는 생활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한다. 1970년대 이후, 약 50년간 지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이런 과거의 수치들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부른다. 하지만 작가는 두려움에만 빠져 있는 것보다 당장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기를 권한다. 책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덜 소비할지 생각해라'라고 할 수 있겠다. 풍요로운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상에서 무엇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실천해 보는 태도는 분명 지구를 풍요롭게 바꿀 것이다.

## 2. 토의하기

**토의①** 환경 보존을 위한 무조건적인 에너지 절약이 과연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가?...반대 사례 찾아보기 또는 반대 경험 공유

## 하기

**권\*운:** 무조건적인 환경 보전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만 주지는 않는다.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무언가를 발달시키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보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에 대해서 조금 다른 측면의 해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환경 보전이 우리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예시를 들자면 자원 채굴 등이 있을 것 같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듣는 자원들인 석탄 석유 이외에도 구리나 코발트, 아연 등 우리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자원들 역시 이 석탄, 석유처럼 광산 등이나 채굴기를 사용해서 채굴해야 한다. 이때 이 채굴과 운송 과정은 큰 환경오염을 야기하는데 근처의 대기나 물, 생태계에 피해를 주며 운송을 위한 도로 포장이나 여러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광물들을 캐지 말자니 구리나 코발트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수적 광물 자원들이라 현재 가치가 나날이 상승하고 미래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무조건적인 환경 보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담:** 환경 보전을 위한 무조건적인 에너지 절약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항상 그렇지는 않다. 에너지 절약은 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우리의 편리함이나 효율성을 희생해야 할 수 있다. 일단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 효율이 큰 장비나 시설을 구입하거나 건물을 재건축해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일부 산업 부분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과 규제 때문에 생산 설비를 줄이거나 가동 시간을 제한함에 따라서 기업의 생산량과 효율성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시설이나 건물의 온도를 낮추거나 에어컨 사용을 제한해서 건물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불편한 환경 조건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고 지속적인 대응책을 생각해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윤:** 자원 소비를 줄여 에너지 절약한다면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에너지 절약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을 위해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경 보전, 지구 온난화 완화 등인데, 에너지 절약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의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사례 중 하나로 건물 내 공기질 저하가 생각났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건물 내부 층

분한 환기 시스템이 갖추지 않는다면, 건물 내부에 유해 물질과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공기 질이 저하될 것이고 건물 사용자의 건강에 치명적일 것입니다.

**토의② 환경 보존 정책과 환경에 반하여 실행된 정책들 사이의 차이점 비교하고, 현실적인 절충 정책 찾기.**

**권\*운:**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한 정책을 찾아보자면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나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찾아 보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서 찾아 보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석탄을 연료원으로 하는 발전소에 대한 오염 규제도 철회했다. 이러한 규정은 발전소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수은, 아황산가스, 미립자와 같은 유해 오염 물질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규제를 철회하면 이러한 오염 물질의 방출이 증가하게 되고 인간과 야생 동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차량 및 트럭에 대한 연비 기준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기준은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온실 가스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준을 약화하면 차량과 트럭이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하게 되고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온실 가스의 양이 증가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국가 환경 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의 규모를 축소했다. 이 법은 연방 정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규칙을 축소하면 연방 정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규제 약화는 공기, 물, 토양의 질을 저하시키고 기후 변화의 영향에 미국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정책의 전체적인 영향은 오는 수년 동안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성향의 정책들을 찾아보고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 파괴와 보존 사이의 절충안은, 우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정책을 시행하고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한 결정적인 근거로는 미국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약의 제약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정책을 펼친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절충안은 국가가 더 발전할 수 있으면서 자연 보존적인 정책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담:** 기업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환경 영향 평가 제도와 배출시설 인허가 제도이다.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기업이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주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승인해 주는 제도이고 배출시설 인허가 제도는 기업이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오염 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오염 물질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으로 인한 환경 파괴 사례에는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인 시화호 사업이 있다. 시화호는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체의 분산과 해외 진출 건설업체들의 건설경기 불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추진시킨 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간척지에 새롭게 조성되는 농경지와 공업단지에 공급할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되었는데 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시화 담수호 건설은 대규모 방조제 건설 시 야기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대책 없이, 바다를 막아 인근 하천에서 유입되는 담수를 모아 호수화한다는 단순한 토목 논리 하에 시작되었다. 인근 공단들로부터 유입되는 오수에 대한 대책 없이 방조제가 건설되어 막대한 양의 해수가 오염되기 시작했고 시화호 내의 물은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썩어가게 되었다. 나는 환경 파괴에 대한 정책으로 “환경세” 부과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주장한다. 이는 기업이나 개인이 환경 오염을 더 많이 일으킬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와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환경 보존 정책으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떠올랐습니다. 이 정책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시기에는 공공기관의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특별 규제, 건설 현장의 작업 중단,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산업시설의 운영 제한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합니다. 환경에 반하여 실행된 정책으로는, 2020년 경남 하동에 위치한 '순천만 국가정원'을 대상으로 한 산림 파괴 사례입니다. 이곳에 산림 파괴를 위한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보호해야 할 자연환경이 파괴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실적인 절충 정책은 경제적 발전과 환경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 보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부가 환경 보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다면, 환경 보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인상 깊었던 장면 공유하기

**권\*윤:** 이 책은 내가 선정한 책이다. 환경생명공학과 학생으로서 환경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하였다. 이 책을 읽고 후속 활동으로 기사를 찾아보는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 환경 관련 정책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전히 환경 관련 정책이 부족하고 이를 어겼을 때의 재재 역시 약하다는 것을 찾아보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후에는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큰 화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에 좀 더 많은 사

람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좋은 정책,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페이지 231쪽의 인간이 지나치게 풍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구가 망가지고 있다. 무심코 버린 탄산수 병, 더위를 이기지 못해 튼 풀가동 중인 에어컨 등을 예시로 든다. 이유는 나 역시 무심코 내가 편하기 위해 한 행동이 지구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엄격한 환경론자라고 하는 것이 아닌 지구를 위해. 후대를 위해서 내가, 나라도 무언가를 해야하지 않나라는 성찰을 하게 한 구절이다.

**이\*담:**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게 생각했던 부분은 지구에서 전기와 같은 에너지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10억명 이상이나 된다는 사실이었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인간은 약80억명 정도로 그중에 10억명이면 대략 12% 정도의 인간들이 에너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에너지는 전기나 화석 연료 등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필요하게 여기는 것들로 우리는 지금 과도한 에너지의 사용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에너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나 많다는 사실이 나에게서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이\*윤:** *'OECD 국가들이 매주 하루씩만 '고기 없는 날'을 정해서 지킨다면, 올 한 해 배 굶는 사람들을 모두 먹일 수 있는 1억 2000만 톤의 식량용 곡물이 여분으로 생기게 된다.'*(9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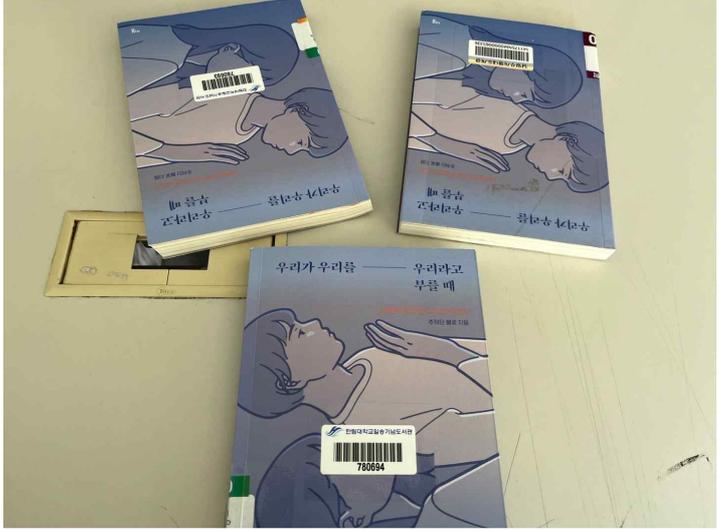
현재 인류는, 음식이 충분한 것을 넘어 대부분이 버려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많은 가축들이 도살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세계 전체가 공장같다고 느꼈습니다. 책을 다 읽고, 지금껏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누려왔던 것들이 어찌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위 문장처럼 지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행동을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크다는 것들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잘 와닿았습니다.

2024년 4월 18일

참가자대표 : 이\*윤

[붙임1]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양식 1부.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책과 함께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5월 2일(목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4****	이름	이*운	학번	2024****	이름	권*운
	학번	2024****	이름	이*담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참석인원	3명							
선정도서	추적단 불꽃,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2020)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진행 도서]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p>1. 책의 핵심 내용 요약하기</p> <p>권*운: 이 책은 총 1,2,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1부는 N번방을 취재하게 된 계기, 2부는 저자들인 추적단 불꽃의 에세이에 가까운 형식으로 쓰여졌고, 3부는 N번방 보도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책에서는 N번방의 검거나 그 이후의 이야기가 많이 없지만 저자의 힘든, 괴로운 심정이 잘 서술되어져 있다.</p>							

**이\*담:** 이 책은 한때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의 최초 보도자이자 최초 신고자인 추적단 불꽃의 활동을 담아낸 책입니다. 추적단 불꽃은 두 사람으로 구성된 활동집단으로 이들은 대학생의 신분으로 텔레그램의 n번방 사건을 취재하여 세상에 디지털 성범죄의 실상을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1부 '2019년7월 그날의 기록'와 3부 '함께 타오르다'는 팩트 위주로 서술되어 있고, 2부는 '불과 단의 이야기'로 서로를 알게 된 계기와 취재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각자의 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디지털 범죄와 이를 파헤치는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윤:** 이 책은 N번방 취재와 기사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수 년의 취재 과정에서, 대학생에 불과했던 저자들이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N번방'의 생태계,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어떤 범죄 행위가 행해졌는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잡히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던 N번방 가해자들이 검거된 후 알게 된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 2. 토의하기

### 토의① '사적재제는 정당한가?'에 대한 생각 공유하기

**권\*윤:** 이 책의 내용은 n번방에 관한 책이었는데 이 n번방과 같은 성, 혹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적재제나 공권력의 신뢰도 하락, 가해자 혹은 그보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3차 피해이다. 우리는 우선 '사적재제가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의를 했는데 나는 사적재제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사적재제 역시 법에 어긋난 불법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가 사적재제 등의 운운하는 근본적 이유는 법의 허술함, 범죄 행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좋은 법은 법이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사는 한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하위 법들은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적재제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을 너무 옹호하거나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영웅'으로 여겨질 것이며 이보다 더 작거나 혹은 억울하게 죄를 쓴 사람들에게도 참교육, 영웅심리고 사적 재제가 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적제재를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결국 공권력 신뢰가 나오는 이유는 일단 공권력을 가진 경찰 등의 사람들이 일을 막 대충한다거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는 당연히 소수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대형 사건은 한정적이고 많지 않다. 또한 경찰들이 열심히 일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사건보다는 경찰들이 소위 삽질해서 범인을 잡을 시기를 놓쳐 나중에 범인이 더 사고를 일으킨 후 검거되는 것이 더 기억에 많이 남고 뉴스나 역시 더 자극적이고 읽고 싶게 생긴 재목을 들고 나올 것이다. 나 역시 고등학교때 어떠한 스토킹 사건이나 여러 사건들에서 사건의 조짐이 보임에도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큰 사건이 난 것들로 인해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었었다. 그러나 지금와서 더 깊게 생각해보자면 경찰들이 공권력을 잘 활용해 일을 했으면 당연히 큰 사고없이 예방됐을 것이고 이는 우리가 접하는 뉴스에 뜨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 기억 속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난 공권력의 신뢰의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경찰도 대부분 열심히 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으로 공권력의 신뢰보다는 다들 자신이 맡은 업무에 충실한다면 누군가는 알아준다는 것만 알고 열심히 일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담:** 제가 이 책의 추적단 불꽃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유튜브나 다른 SNS 플랫폼에서 성행했던 '참교육 콘텐츠'입니다. 영상속의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사회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위 말하는'참교육'을 구현합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민간인 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이러한 사적제재를 어디까지 정의라고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토의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신고하는 것까지가 그 마지노선이고 나머지는 공권력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범죄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뒤를 캐다 걸리는 것은 아무리 정의를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위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위협에 노출될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몇몇 영상들을 보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걱정할 만큼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기도 하고 사건의 가해자들이 직접 신상의 위협을 가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서 공권력이 아닌 개인으로서 맞선다는건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고 잘못하면 같이 범죄 행위에 연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적 제재에는 적당한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 저는 사적제재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적 제재가 성행하게 된 배경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포털에 들어가면 매일 여러 건의 범죄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사화되지 않은

사건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이 분노한 점은 강력 범죄 사건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신고 형량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레 사적제재 성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제재 콘텐츠는 '나쁜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그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국민의 알권리가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단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적제재가 정당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인 사적 응징뿐 아니라 신상 공개도 공적인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로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사적제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제재나 사적인 복수가 무분별하게 허용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부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적제재는 정당하지 않다.

### 토의② 디지털 성범죄의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견나누기

**권\*운:** 2, 3차 피해를 막는 방법으로는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등의 심리적 지원과 피해자 보호 법안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발의 하는 등 법적 지원,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지 않고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으로써 인터넷 상의 악플을 쓰지 않으며 매도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런 인터넷이나 온라인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법률을 강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 및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담:**이 주제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제도적인 부분의 수정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인상 깊었던 장면에서 기술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계속 사회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일지라도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는 속도는 정말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범죄 역시도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면 언제 다시 성행할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디지털 범죄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디지털 범죄의 여지가 보이면 신고하고 항상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항상 주위를 기울이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방,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 이 책을 읽기 전에 저는, 가해자들의 범죄사실에 분노하느라 그 뒷

면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인 추적단 불꽃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보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자신이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한 ‘인간’이 착취당하는 모습을 즐겼음에도 잡히지 않은 가해자들이 많고, 검거된 가해자들 또한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에게 ‘왜 원인을 제공했느냐’라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에 분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고, 소리 낼 기회가 주어지고 그럴 용기가 생겼을 때 사회에 목소리를 내면 된다고 느꼈습니다.

### 3. 인상 깊었던 장면 공유하기

권\*운: 가장 인상깊었던 내용은 책 페이지 259쪽의 문장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위법적인 수사 절차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겠다, 이걸 사실 말이 안되요. 일단은 여러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인하는 모든 행위는 통제한다는 법익을 우선시 해야 해요.”*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말인 것 같아서이다. 우리나라 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관련 법이 매우 약하다. 그렇기에 이런 N번방과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 N번방이나 조두순, 일명 나영이 사건 등의 큰 사건을 통해 점점 법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아직 법의 수위가 약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처럼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법률은 다른 인권보다 우선시 되며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윤: *“살아온 환경, 살아온 방법, 살아온 시간이 달라도,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연대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면서 나온 문장입니다. 책을 다 읽고 다시 책을 폈을 때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을 읽기 이전엔 사회의 이면을 들춰 깊게 박힌 뿌리를 흔들고 제거하는 것은 나를 소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현재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과 관련 있을까?’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끝없는 무력감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사회에 문제점을 던지는 사람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자처럼 사회에 소리를 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이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연대가 생긴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이후에 누군가 피해를 호소한다면 남의 일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같이 분노하고 공감할 것입니다.

이\*담: 저는 157페이지의 “누군가는 왜 그리 힘들게 인생을 사냐고 묻기도 한다. 왜 별것도 아닌 일을 예민하게 받아 들이냐고. 웃기는 말이다. 내가 불편하고 싶어서 불편한다. 여러 사회문제를 인지하고 불편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예민하게 구는 것’으로 여겨선 안 된다. 누군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일상이 다른 사람에게는 쟁취해야만 하는 것일수 있다. 나의 예민함이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고 믿는다.” 라는 구절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을 쓴 화자의 말처럼 책의 중심 내용으로 다루는 디지털 성범죄 말고도 우리가 겪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를 내가 겪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상관없는 일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나에게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졌습니다.

2024년 5월 2일

참가자대표 : 이\*윤

[붙임1]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양식 1부.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책과 함께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5월 9일(목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4*****	이름	이*운	학번	2024*****	이름	권*운
	학번	2024*****	이름	이*담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참석인원	3명							
선정도서	고선규, “인공지능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2019)							
<p data-bbox="183 1473 459 1559">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 data-bbox="507 1043 1171 1084"><b>[진행 도서] 인공지능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b></p> <p data-bbox="507 1093 1430 1178">원래 4주차에 진행하기로 했던 책은 도서관과 e북 사이트에서 구하기 어려워, 같은 분야의 다른 도서로 바꿔 활동하였습니다.</p> <div data-bbox="671 1207 1166 1861"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507 1899 900 1939">1. 책의 핵심 내용 요약하기</p>							

**권\*윤:** 개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매체 수와 종류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객관적 사실보다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대중 속에 스며든 거짓 정보 하나가 개인의 생활과 사회 한 부분, 심지어 나라 전체를 휘청이게 하는 일도 자주 만난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 교육과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각종 이름의 “리터러시” 교육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여전히 미디어 제작 교육, 미디어 활용 교육에 머물고 있다.

이 책은 아직 초기 단계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간과된, 미디어 리터러시가 추구하는 기본 방향과 본질에 관해 논의한다. 언론·미디어, 정보, 청소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의 시선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방면으로 이해하고 그 효과와 방안에 대해 말한다. 미디어·게임·데이터·뉴스 리터러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불리더라도 그를 관통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이 책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학교 교육은 물론 민주시민 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의 구체적 틀을 세울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이\*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의 기술을 분석하거나, 경제성장의 수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로만 다뤄왔습니다. 그와 달리, 이 책은 인공지능을 인간과 공존할 대상으로 전제합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올바른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사회적 해석과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소비의 대상이나 경제적 도구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인공지능을 단순히 경제 성장을 위한 도구로만 소비한다면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국가와 기업이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도 인공지능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로봇부터 무인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우편물 배송, 일본 도쿄의 다마시 시장 선거에서 한 후보가 인공지능을 정치에 활용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던 사례까지 흥미로운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담:** 이 책의 화자는 인공지능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초고령 사회가 직면한 과제, 4차 산업혁명 사회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해 해결하는 사례를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자가 하는 일에서 이 책에 대한 신뢰가 더 올라가게 되는데 이 책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를 총5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설명해 줍니다. 책속에서 화자는 인공지

능을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같이 공존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 2. 토의하기

### 토의① ‘가짜뉴스’에 대해 자유로운 생각 공유하기

**권\*윤:** 나는 앞서 인상깊은내용에 서술한 것처럼 허위 뉴스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 이유로는 여러방면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사회적 영향으로는 허위뉴스는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며,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선거 기간이나 사회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허위뉴스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 영향으로는 허위뉴스는 개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고, 그 결과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관련 허위뉴스는 잘못된 치료법을 따르게 하여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영향으로는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허위뉴스는 주가를 급락시키거나 상승시켜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문제으로는 허위뉴스는 진실과 사실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오도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인 공정성과 진실성을 훼손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허위뉴스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윤:** ‘가짜뉴스’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여러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게시물의 자료의 출처가 모호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가짜뉴스는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자면, 저는 특히 SNS에서 허위광고를 자주 접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업체에서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고 좋은 후기를 남긴 것처럼 조작하거나, SNS 인플루언서에게 ‘뒷광고’를 맡겨 마치 본인이 잘 쓴 제품을 팔로워들에게 추천하는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소비 판단에 혼동을 줍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단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담:** 저는 가짜뉴스는 사람들의 올바른 사고를 해치는 부정적인 것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다 같이 모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세계 각지의 정보를 한 자리에서 빠른 속도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는 그 정보의 진위여부를 잘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된 정보라도 많은 기사에 올라오는 소식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정 기사가 올라오더라도 확인하지 못하거나 이미 진실이라고 믿어버린 사실에 대해서 정보를 수정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론전을 위해서 찌라시를 뿌리고 부정적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른 기사를 터뜨리기도 하는데 이런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들겠지만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주어지는 정보가 과연 옳은 정보인지 계속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토의②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권\*운**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음식점에서는 홀 직원 없이 키오스크와 무인 이동 기계가 음식을 오더 및 서빙을 하고 있고 올 시즌부터는 야구의 볼 스트라이크도 로봇이 판정한 후 알려준다. 또 해외 쇼핑 사이트인 아마존의 창고는 로봇이 물류 분류를 해서 재고 관리와 주문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 이외에도 제조업, 의료, 서비스업 등의 여러 다방면에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에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생산성 향상, 인공지능 프로그램 및 제조에 관한 새로운 직업 및 일자리 창출, 업무의 질 향상, 삶의 질, 편의성이 크게 늘고 인건비 등의 부대 비용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여럿 나타날 수 있는데 먼저 일자리 감소가 나타난다. AI의 자동화로 인해 일부 직업이 사라지거나 인력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조업, 물류, 서비스업 등에서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작업이 많이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윤:** 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업무를 대체할 때는,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공지능이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생산성을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이미지 생성 및 수정을 위해 사용되는 딥러닝 알고리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존의 이미지를 학습하고 모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성물이 기존의 일러스트 작품과 유사하거나 또는 동일하다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

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에 사용될 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데이터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할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담:** 책에서도 나왔지만 나는 인공지능이 단순노동적인 부분에서 인간 대신에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래 그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고 기본소득제도 등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후속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이런 활동이 의미있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원래 일하던 사람들을 내쫓고 그 자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막대한 양의 실업률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다 인간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면 이 제도는 실행되지 않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직업이나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직종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무서운 추세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이나 소통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범위는 단순노동과 관련된 부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 토의③ 인공지능이 쓰인 구체적인 사례 찾고 그에 대한 관점 공유하기

**권\*운:** 저는 인공지능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산업 분야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시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 데이터 센터 냉각전력 감소율 및 독일 지멘스 자사 스마트 공장 불량률 저하 등 인공지능은 제품 결함을 식별하는데 인간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는 데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은 우리 일상생활 속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의료 분야에서 이미 인공지능 AI 기반의 진단 프로그램과 개인의 건강 관리를 위한 앱 등이 과거 고가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대신해 누구나 쉽게 개인에게 맞춤 건강 관리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교육 분야에서도 AI는 학업 성취도에 따라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커리큘럼 서비스를 제공해 학업 효율을 높이고 있다. 그 외에도 IOT 사물인터넷 (센서가 달린 가전제품 등의 네트워크 연결 기술)스마트 홈 기술과 AI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하여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난

방, 냉방 관리 및 전력 관리 등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윤:** 인공지능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인공지능이 특정 기술에 활용될 때, 좋은 목적으로 쓰일 수 있고 나쁜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딥페이크 기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합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인터뷰를 방영했습니다. 여기서 딥페이크 기술은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고, 표정과 얼굴을 가리는 모자이크 방식을 대신해 시청자들에게도 이들의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가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성 착취물 제작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합성물 역시 실제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졌습니다. 누구나 딥페이크 앱과 웹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등 15초~60초 사이의 자주 보이는 합성영상들 또한 딥페이크 방식의 영상입니다. 만약 범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발견했다면 소비하지 않고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이\*담:** 저는 인공지능의 긍정적 사례로 책에 나왔던 길 안내 서비스 로봇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복잡한 전철을 이용하는 현지인, 해외 손님들에게 노선 안내를 담당하는 로봇을 배치해 뒀습니다. 7개 국어가 가능한 이 로봇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그 나라 언어로 길을 안내할 수 있어 지도와 현지인에게만 의지해서 목적지로 찾아갔던 이들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었고 빠른 일처리로 길을 찾으려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 사례로는 다른 수업시간에 배웠던 인공지능의 일자리 대체로 인한 대규모 실업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기사에 나왔던건 한 콜센터였는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직접 상담원을 거치지 않고 문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자 업체에서 콜센터 직원을 집단으로 해고시킨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도 하지 않았고 일하던 직원들은 한순간에 자신의 직장을 잃은 셈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 3. 인상 깊었던 장면 공유하기

**권\*윤:** 나는 책의 2부의 6장인 허위 정보 대응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 장에서는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를 분별하고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할을 설명한다.내가 이 장이 가장 인상깊었던 이유

는 최근 이런 허위 정보를 가진 가짜뉴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에 관한 허위 정보라고 하면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던가 같은 팀 선수와 갈등이 있다거나 하는 뉴스가 유튜브 등지에서 자주 보이곤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를 진짜로 믿어 손흥민 선수와 소속팀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댓글로 '손흥민 선수 XX로 이적하는거 확실하다네요'라던지 하는 근거없는 글을 쓰고 이게 또 확산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런건 약과고 연예인들에게 쓰는 근거없는 허위 비방글은 연예인에게 큰 상처를 주고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다. 이런 허위뉴스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로봇과 AI의 경제적 측면에 주로 주목해왔다고 생각합니다. AI 관련 뉴스는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기술 분석에 초점을 두거나 인공지능을 경제성장의 수단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로서 자주 다뤄왔습니다. 반면, 이 책은 인공지능을 인간가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저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인 액터'로 인정하고 그들과의 공존을 위해 신뢰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서,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이\*담:** 저는 이 책의 3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최근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지능이나 판단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인공지능을 ‘자율적’ 기계로 인식하고,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 조건이 필요한가?’를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구절이 인상깊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게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을 배척하지 말고 그들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이 구절에 공감이 되어 인상 깊었던 구절로 뽑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 전체에서도 인공지능이 우리 주변에 녹아든 사례,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앞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전체적으로 서술되어있어서 이 책을 읽어본다면 인공지능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줄 수 있는지 잘 알게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대표 : 이\*윤

[붙임1]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양식 1부.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책과 함께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5월 16일(목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4*****	이름	이*운	학번	2024*****	이름	권*운
	학번	2024*****	이름	이*담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참석인원	3명							
선정도서	보도 새퍼, “돈”(2011)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진행 도서] 돈							
								
<b>1. 책의 핵심 내용 요약하기</b>								
권*운: 이 책에서 보도 새퍼는 우리에게 돈의 중요성과 부자가 되기 위해 하는 질문 등을 알려준다.								

책의 내용은 금융 교육과 자기 계발, 재무 관리와 투자 전략, 부의 심리학, 자기 신뢰와 행동 계획의 4개의 파트로 되어 있으며 금융 교육과 자기 계발에서는 금융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평가, 개선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독자들에게 자기 계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전적인 성공을 위해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재무 관리와 투자 전략에서는 금전적인 자유를 위해서는 소득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부의 심리학에서는 부의 심리학의 이해는 재정적인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자는 부의 마인드셋과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자기 신뢰 행동 계획에서는 자기 신뢰를 높이고 목표를 설정하는 법을 알려준다. 이는 자신의 재정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이\*윤:** 책의 부제목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꼭 필요한 자기경영'입니다. 저는 이 책을 '사람들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떤 마인드와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강조합니다. 저자의 핵심 주장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돈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밟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돈이 없다면 돈이 인생을 끌고 다니고 돈이 있어야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돈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의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의 신념을 가지고 모든 행위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행운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담:** 이 책은 제목처럼 큰 틀에서 보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 경제적 자유를 밟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투자의 기본 원칙, 돈을 사용하는 방향 등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뿐만이 아닌 효과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는 방법이라던지 주식과 같은 투자를 하는 방법 등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돈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자기 경영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보도 새퍼는 스물여섯 살 때만 해도 빚에서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서른살에 자기가 가진 돈의 이자만으로 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얻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이 돈이라는 책인데 이러한 배경은 이 책에 신뢰감을 실어주는 단편적인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토의하기

토의① 부자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것 찬성하는가?

**권\*운:** 자가 아닌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세금을 비교적 많이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 주제를 듣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빌 게이츠이다. 빌 게이츠는 오래전부터 부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기준으로 250명 이상의 초 부유층이 이 부자들에게 내는 부유세 부과에 대해 찬성하는 서한을 냈는데 이 중에는 월트 디즈니의 후손인 아비게일 디즈니, 영화 '계승'의 배우 브라이언 콕스, 록펠러 가문의 발레리 록펠러 등이 있다. 또한 부자들은 지금보다 많은 세금을 낸다면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지원을 더 확대함으로써 빈부 격차를 좀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코로나, 경제적인 문제로 아르헨티나, 영국 등의 나라는 이미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체납금이 많은 세무서가 강남세무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돈이 많은 부자일수록 면제, 혜택 받는 세금액이 많으며 그냥 안내고 버티는 사람 역시 많이 있다. 나는 이런 미납세금이나 부유세를 통해 부자들에게 돈을 더 걷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윤:** 저는 부자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부자에 대한 높은 세율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높은 세율은 사회적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정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인 인프라,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 중에는 재산의 일부를 투자하거나 기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담:** 저는 부자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보통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지는 않을만한, 하지만 중산층이나 그 아래 소득을 받는 사람들보다는 많은 정도의 세율의 세금을 부과해서 부의 재분배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의 자녀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성장의 시작점부터 기회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계층과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세율을 높여서 조금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면 교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부자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한다는 입장입니다.

## 토의② 돈 관리 경험 공유하기

**권\*윤:** 중학생 시절,정확히는 중1,중2시절에 피씨방에 빠져 살았던 적이 있었다. 이 2년간 내가 중1~2까지 모았던 돈이 180만원 정도였는데 거의 절반 이상을 썼었다.그리고 고1 때쯤부터 수중에 가진 돈이 부족해 허덕인 적이 있다. 이때 나가는 돈이 어디로 나가고 얼마나 쓸데없는데 돈이 나가는지 찾아보기위해 2달 정도 내가 쓰고 받는 돈을 쓰는 가계부와 비슷하게 입출금 돈을 적어본적이 있다.그리고 2달동안 해본 결과 생각보다 먹는것에 돈이 많이 나갔었다. 이 당시에 내 용돈이 5만원이었는데 주에 2~3번정도 학원이 끝난 후 친구들과 야식을 먹었었다. 또한 고등학교때는 피씨방을 많이 가지 않았는데 노래방같은데를 많이 가 돈이 많이 나갔었다.이러한 기입장을 기준으로 3~4달간 야식도 줄이고 친구들과 노는 빈도도 줄여가면서 돈을 모았었다. 물론 고2로 올라가면서 용돈이 오른 것 역시 한몫 했다.이러한 경험을 느낀점은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은연중에 자각하면서 기피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각을 하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윤:** 저는 알바에서 번 돈을 3개의 통장에 나눠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활비 통장, 저축용 통장, 비상금 통장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그 달에 있는 이벤트에 따라서 한 달 동안 얼마를 쓸지 정하고 생활비 통장에 넣었습니다. 생활비를 제외한 돈 중 절반은 미래를 위해 저축용 통장에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고 있어요. 예상치 못하게 미리 정한 생활비보다 많은 돈을 쓰게 될 땐, 필요할 때마다 비상금 통장에서 조금씩 빼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달이 되었을 때, 생활비 통장에서 남은 돈은 무조건 저축용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이와 다르게 비상금통장에 돈이 남았을 때는 저축하기도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소 심심할 때 관심 있는 종목의 주식들을 보곤 합니다. 증권 앱에서 관심 있는 주식들을 즐겨찾기 해놓고 관심 기업의 뉴스가 뜰 때마다 읽어보는 편입니다. 기본적인 경제 용어만 아는 수준이지만, 투자 지표와 실적을 보고 투자를 결정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투자 종목과 투자 시기를 정했습니다. 또한 소액이지만 높은 수익률 덕분에 뿌듯하고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담:** 저는 전에 주식 투자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분의 돈이었고 소액이긴 했지만 정말 주식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 싶었고 좋은 종목을 사면 큰 돈을 번다는 말에만 현혹되어서 무작정 아무 주식이나 구입했던 기

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그때를 생각하니 정말 바보같은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것은 제테크가 아니라 그냥 돈을 늘린 행위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바를 해서 매달 월급을 받고 있는데 돈이 나갈때마다 항상 가계부를 작성하고 통장을 나눠서 들어오는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게되면 내가 어느 분야에서 지출을 얼마나 하고 어디서 쓸데없는 소비를 하는지도 찾을 수 있어서 과도한 지출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돈을 관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돈을 여러 통장에 분산시켜 놓는것도 지출을 절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용도에 맞춰서 들어오는 돈을 통장에 넣어놓으면 예상에 없는 지출을 할때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가진 예산 안에서 소비 계획을 짜게 되어서 좋은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 같습니다.

### 토의③ 성공의 척도를 돈이라고 생각하는가, 명예라고 생각하는가?

**권\*운:** 성공의 척도를 돈이라고 생각하는지? 명예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솔직히 나는 돈이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한다. 우선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돈이란 요소는 명예라는 요소 보다 쓰임이 많다. 솔직하게 명예하는 요소는 쓰임이 많다고 보다는 스스로의 성취감,만족감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돈은 쓰임이 많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그 사람의 성취감,만족감이 될 수도 있고,이를 자랑하는 뽐냄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무언가 사업이라던지,투자 더 나아가 주식등의 활동을 할 때 큰 제약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결로 돈이 이 사회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람들은 물론 돈과 명예를 모두 가지는 것을 원하지만 돈은 없는데 명예만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현대에 노블리스 오블리주 라는 말이 있다. 많이 가졌을수록 많이 나누어야한다는 말이다. 결국 무언갈 나눔으러써 그 사람이 얻는 것이 명예이다. 즉 명예를 갖기 위해서는 돈 역시 일정부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나는 성공의 척도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이\*윤:** 저는 성공의 척도를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은 돈이나 재산의 양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가치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재산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명예는 자신의 인격과 더불어 사회에 기여하는 덕목과 업적을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며, 이는 자아실현과 인간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명예는 더 오래 지속되고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돈이나 재산은 변화하는 경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지만, 명예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치가 쌓이고 강해집니다. 명예로 인한 인정과 존경은 평생 동안 기억되며, 후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풍부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 끔직한 범죄자라면 그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일까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이완용은 일제시대 때 조국을 등지고 부를 축적했지만, 그의 행동은 명예롭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우리 역사에서 부정적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후대에도 계속 지탄받을 인물이 분명합니다.

**이\*담:** 저는 돈과 명예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지 성공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은 모두가 인정하는 권위를 가지고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돈과 명예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있지만 사람들의 인정이 없다면, 사람들의 존경이 있지만 궁핍한 삶을 산다면 두 모습 모두 성공한 사람의 삶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돈이 있지만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돈이라면 명예를 얻을 수 없고, 돈이 있어야 배플 수 있기에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돈과 명예는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 3. 인상 깊었던 장면 공유하기

**권\*윤:** 책 페이지 97쪽의 '당신에게 충분한 돈이 모이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이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누군가,혹은 내가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할 때 막연히 복권에 당첨이 된다거나 사업이 대박이 난다던지 등등의 나름의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이런 일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또한 사람마다 부자라고 부를 수준의 재력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와 저축이 필수적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윤:** 저는 이 책을 '사람들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돈이 인생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돈맹에게는 미래가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인생에서 돈에 집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인생에서 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시기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했던 때라고 느꼈습니다. 그때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선택의 기준이 '돈'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먹고 싶을 때, 심지어 필요한 것을 사려고 할 때도 선택의 기준은 돈이었기 때문에 성능이나 질보다는 가격만 보고 사곤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를 선택할 때 모든 기준이 '돈'이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지금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이전보다 돈이 생겼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생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돈이 중요한게 아니야'라는 말을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마음 속으로 느끼고만 있었던 가려운 부분들을 책에서 잘 긁어주어서 흥미로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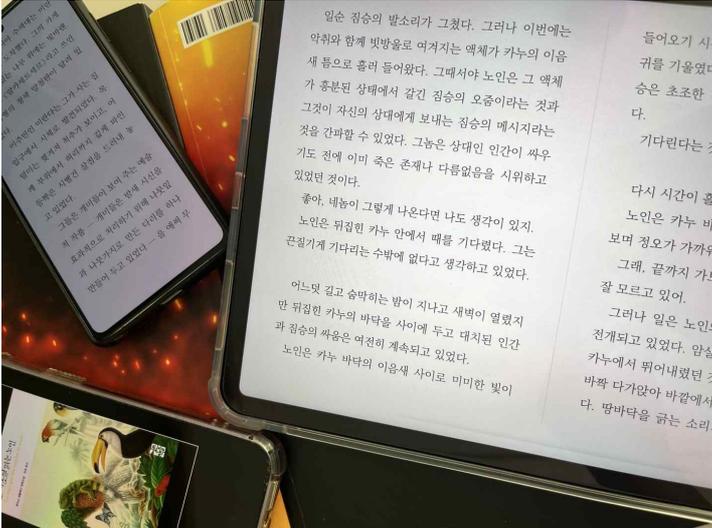
**이\*담:** 저는 273페이지의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워야한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배워야한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배워야한다. 배운다는 것은 차이를 알아본다는 것이다! 차이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라는 구절이 인상깊었습니다. 이 구절은 책을 쓴 글쓴이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경제에 관해서 기본 지식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문제들과 앞으로 나에게 생기는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경제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16일

참가자대표 : 이\*윤

[붙임1]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양식 1부.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b>책과 함께</b>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4년 5월 23일(목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테디룸							
<b>참석자 명단</b>	학번	2024*****	이름	이*운	학번	2024*****	이름	권*운
	학번	2024*****	이름	이*담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b>참석인원</b>	3명							
<b>선정도서</b>	루이스 세폴베다,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1993)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p><b>[진행 도서]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b></p> 							
	<p><b>1. 책의 핵심 내용 요약하기</b></p> <p>권*운: 주인공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아마존 열대우림으로 이주하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아내가 병으로 사망한다. 이후 홀로 남겨진 볼리바르는 원주민 슈아르족과 함께 어울리고 생활하면서 그들의 지혜와 생존 기술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결국 슈아르족과 떨어져 혼자 살게 된다. 이후 그는 고독한 삶을 위로하기 위해 연애소설 읽기 시작한다. 그는 로맨틱 소설 속에서 현실의 고통과 외로움을 잊고 책을 통해 다른 삶을</p>							

경험하며 그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후 볼리바르가 사는 마을에는 점점 더 많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자연과 인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외부인들은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들을 학살하게 된다. 어느 날, 한 외지인이 죽은 채 발견되고 사람들은 이를 퓨마의 소행으로 여긴다. 이후 사람들은 경험이 풍부한 볼리바르에게 퓨마의 사냥을 부탁하고, 그는 마지못해 퓨마를 추적하지만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의 잔혹함을 깨닫게 된다. 결국 볼리바르는 퓨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이후 그는 다시 고독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연애소설에서 받은 위로와 슈아르족에게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다짐한다.

**이\*윤:** 연애소설을 읽는 노인, 안토니오와 아마존 밀림의 여러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작은 에피소드들이 단편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는 비극적인 사건을 예고하는 암시 또한 있습니다. 새롭게 정착한 이주민들과, 한 방을 노리고 들어오는 백인들, 동물들을 쏘아죽이는 밀렵꾼들 때문에 정착민과 동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주인공 안토니오는 밀림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고 원주민들과 동물들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1년에 두 번 오는 치과의사가 가져주는 연애 소설을 달도록 읽으며 지냅니다. 어느 날 기체가 발견되고 연애소설을 읽던 노인의 평화가 위협받게 됩니다. 인간과 동물의 대치, 밀림의 우기, 동물들의 울음소리, 강물이 흐르는 소리 등 아마존의 생생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독자들에게 자연을 외면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담:**이 책은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프로아뇨라는 남성의 시선에서 쓴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배경은 아마존으로서 원주민과 백인 간의 갈등, 자연을 무분별하게 해치는 백인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책인데 이 책에서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프로아뇨는 초기에 이주해서 원주민의 삶에 동화되어 그들과 같은 사고를 하게 된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의 과거 이야기가 풀리고 책에 나오는 백인 밀렵꾼이 우기에 살행이들을 사냥하게 되어 화를 입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고 책의 제목이 왜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인지 알게 됩니다.

## 2. 토의하기

**토의①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을 조사하고 본인의 생각 공유하기**

**권\*윤:** 이 활동을 선정한 이유는 미국이 가장 큰 이유였다. 고등학교 시절 배운 내용에서는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 특히 원주민에 대한 박해가 크다고 들었다. 이를 생각해서 정말로 미국이나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 원래

살던 원주민, 토착민과 유럽에서 넘어오는 이주민 사이에 갈등과 같은 큰 범위에 사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농촌인과 귀농한 사람 사이의 갈등역시 이주민, 원주민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중 나는 최근에 일어난 갈등이었던 2023년 7월 보성에서 일어난 사건을 찾아보았다. 지난 7월 보성의 한 돼지 농장주 정모(63)씨는 지속적인 악취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수 십년을 마을 주민들과 문제없이 지냈지만, 최근 제기된 수많은 민원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업계는 주변 마을로 귀촌한 일부 외지인들이 정씨 농장에 대한 민원을 넣기 시작했으며 정씨가 지자체의 후속 행정 지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지난 1999년부터 20년 넘게 축산업에 종사해 오던 정씨는 유서에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민원 제기로 너무 너무 힘들다'며 '주변 주민분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고 적었다. 인근 주민들은 "비가 심하게 내리면 한번씩 냄새가 날 때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 정씨가 워낙 주민들에게 잘하기도 했다. 서로 이해해주면서 살았다"고 했다. 하지만 20여년간 10건도 채 접수되지 않았던 민원은 올해 5월 이후에만 5건이 집중됐다. 지난 5월 30일 접수된 악취 민원을 시작으로 7월에만 4건이 더 접수됐다. 민원을 집중 제기한 이들은 최근 지역으로 이주한 이들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건을 보고 느낀 점은 미국과 같은 큰 지역의 광범위한 것을 아니면 사실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원주민이 이주민한테 갑질을 부리는 흔히 말하는 텃세가 가장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반대로 이주민이 원주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은 못 해본 것 같다. 처럼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은 없어질 수 없다고 생각지만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윤:**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에는 토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갈등이 주로 발생합니다. 원주민들은 전통적인 땅이 그들의 문화와 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서식지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이주민들은 새로운 공간에서 살기 위해 그 땅의 자원 이용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 단체가 정책을 만들어 개입하는 것보다는, 중재자 역할을 맡아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대화를 유도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지역 단체가 원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토지 이용에 대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원주민의 문화와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담:** 미국이 신대륙을 개척할 때 원주민에게 어떠한 해를 입혔는지 학교 역사 수업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갈등이라고 명명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인들의 강압적인 제압에 원주민들이 희생당한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예시는 원주민들의 영토를 뺏아가거나 원래 없던 전염병을 옮겨와 원주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륙을 개발하면서 기존의 원주민들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면역력이 없던 새로운 전염병의 등장은 다수의 원주민들을 죽게 만들었고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은 원주민들의 전통과 생활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나 사회적 규범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등 원주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무자비한 개척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대륙 개척은 원래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강압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없으면 강한 사람에게 말에 따라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존중할 사회적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 저런 강압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토의② 소수민족과 부족들에게 현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가?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도록 두는 것이 옳은가? 생각 공유하기

권\*운: 소수민족에게 현대교육의 기회를 주어야하나 문화를 보존해야하나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나는 현대교육의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인도의 노스센티널섬에 대해 알고 있는가?2024년 현재에도 현대문명을 받아드리지 않고 외부와의 모든 부분을 차단하고 있다. 결국 이섬은 인도 정부에서 출입 금지를 하고 큰 재해를 가하고 있다. 즉, 현대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이다.이는 소수민족의 발전 및 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그렇기에 노스센티널섬의 원주민은 아직까지도 약200명정도의 인구수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소수민족이 현대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의 문화가 보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이들이 현대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를 거부하며 문화를 보존하려는 이도 있을 것이다. 물론 현대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부족의 특성이 흐릿해지고 부족주의적보단 더 개인주의적 성향이 나올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 교육을 받고 지식층이 생기게 되면 부족의 부흥,발전에 더 도움이 되며 다음 세대에 보다 나은 환경이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윤: 문명화되지 않은 소수민족과 부족들에게 현대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대의 교육은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참여를 위한 능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소수민족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사회와 소통을

촉진시켜 문화적인 갈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민족과 부족들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수민족과 부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에게는 더 발전할 기회를 줄 수 있고, 사회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문화 유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담:** 저는 우리가 비인륜적이라고 생각하는 소수민족의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다른 문화는 보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하게 문화를 없애고 현대화 시키는 이러한 행위들은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제거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없애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존재하는 식인문화와 할례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죽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문화는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현대 문화를 배우고 나가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그 부족 안에서 그들의 문화만을 배우고 살았을 사람들에게 바깥 세상의 문화가 어떻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지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은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의사로 인해서 행해져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3. 인상 깊었던 장면 공유하기

**권\*운:**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으로는 책117쪽에 나와있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말로 생명의 소리였다. 수아르족이 하는말에 따르면 낮에는 인간과 숲이 별개로 존재한다. 그런데 밤에는 인간이 곧 숲이라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가장 인상 깊은데 자연과 인간의 화합과 조화에 관한 말인 것 같기도 하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말하는 내용같은데, 내 전공이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과 인간의 조화에 관심이 많고 또한 자연의 위대함,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은 구절이다.

**이\*윤:** *“맞아, 그 짐승은 스스로 죽음을 찾아 나섰던 거야. 그랬다. 짐승이 원하는 것은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인간이 베푸는 선물이나 적선에 의한 죽음이 아닌, 인간과의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싸움을 벌인 뒤에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죽음이었다.”(p144)*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내용을 담은 연애소설을 좋아할 뿐인 노인이 암살행이와 대치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지쳐 죽음만을 기다리는 동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마주한 것

같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암살행위를 죽인 후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린 장면은, 밀림을 기어코 파고 들어 헤집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노인이 인간들의 사랑이 담긴 연애소설만 보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야만성을 잊으려고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담:** 제가 이 책을 읽고 인상깊었던 장면은 볼리바르가 원주민의 삶에 동화되어서 친구인 누시뇨의 죽음에 분노하고 복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책52페이지부터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볼리바르는 원래 원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원주민들 사이에 녹아들었습니다. 비록 원주민들도 그를 완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친구처럼, 우정을 나눈 동료처럼 볼리바르를 대해주었습니다. 그와중에 가장 친한 친구인 누시뇨가 백인들의 총에 맞아 죽자 분노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수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볼리바르는 원주민들의 무리를 떠나야 했지만 현재까지 그들의 습성을 가지고 그들의 생활방식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과정들을 책으로 읽으면서 피가 섞이지 않고 인종이 달라도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등장인물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고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볼리바르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2024년 5월 23일

참가자대표 : 이\*윤

[붙임1]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양식 1부.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책과 함께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5월 30일(목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4*****	이름	이*운	학번	2024*****	이름	권*운
	학번	2024*****	이름	이*담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참석인원	3명							
선정도서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7주차 활동: 북클럽 활동 소감 발표하기, 본인에게 제일 의미 있었던 책 골라서 한림대학교 학우들에게 소개하는 글쓰기</p> <p><b>1. 본인에게 제일 의미 있었던 책 골라서 한림대학교 학우들에게 소개하는 글쓰기</b></p> <p>권*운: 내가 이번 심비우스 북클럽을 하면서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책으로는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를 가장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모두에게 추천할 책은 “회색인간”이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1~2년 전 고등학생 때 성교육을 받았었다. 이 성교육은 화상으로 하거나 영상으로 대체하곤 해서 학생들이 대부분 집중해 듣지 않을뿐더러, 듣는 학생들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수업을 듣지 않았다. 이 책은 몇 년 전 떠들썩했던 N번방에 관한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흥미를 일으키기 쉽다. 또, 성교육에서 알려주는 성범죄 위험성이나 잔혹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기 쉽다. 또한 결국 N번방의 주범들이 모두 검거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학생에게 성범죄에 대한 어두운 부분을 부각하고 예방의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p> <p>그리고 추천하고자 하는 다른 책은 김동식 작가의 “회색인간”이다. 우선 이 책은 단편 소설을 엮어 놓은 소설집으로 읽기 빠르고 김동식 작가만의 특유의 상상력과 그 상상력 속에 담긴 사회문제를 정말 재밌게 잘 풀어놓</p>							

았다. 그 중에서는 “디지털 고려장”과 “손가락이 6개인 신인류”를 추천하고 싶다. “디지털 고려장”은 가족을 가상현실에 이주시키는 것으로 처음엔 비인륜적 행위라며 모두가 반대했지만, 이후엔 결국 우리 일상에 녹아들었다. 하지만 이 디지털 고려장은 비용이 매우 많이 들었는데, 이 때문에 정보 업데이트가 늦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주인공 역시 자신의 아버지처럼 가상현실에서 뇌 스캔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 추천하는 이유는 어쩌면 실제로 한 100년에서 200년 정도 뒤에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게 된다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의 가족 간 사이가 삭막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때가 되면 정말로 늙은 부모를 디지털 고려장 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가락이 6개인 신인류”는 차별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면서 비리, 인간의 추악함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다. 간단히 줄거리를 말하자면, 미래의 정부는 인류의 인공 진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곧 태어날 아이들의 손가락을 5개에서 6개로 만들기로 한다. 그러나 이후에 이 프로젝트가 누군가의 사업에 국비를 몰아주기 위한 비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프로젝트는 폐기된다. 이미 여섯 손가락을 가진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이에 대해 항의하고 소송과 시위를 하지만, 보상을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여섯 손가락에서 다섯 손가락으로 수술받은 아이들은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평생 불편한 손으로 살아야 한다. 여섯 손가락을 가진 아이들은 손을 숨긴 채 지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파로 사람들은 차별에 극도로 예민해지면서 결국 모든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가 되면서 여섯 손가락을 가진 아이들도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게 되는 세상이 된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불행한 일이 있어도 결국 좋은 세상, 결말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물론 여섯 손가락의 아이들은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평등해지고 그들도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뀐 것이라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신한 소재가 흥미로워 추천한다.

**이\*담:** 이번 심비우스 북클럽 활동을 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3주차에 읽었던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와 5주차에 읽은 보도 새퍼의 “돈”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는 논란이 됐던 n번방 사건과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범죄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사람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접하고 읽음으로써 과거에는 이러한 범죄가 있었고 책을 읽고 있는 본인 또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린 친구들은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를 수 있는데

디지털 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회자되고 이를 대처하는 방법 또한 동일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쇄적으로 이 책을 읽고 다른 범죄행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우리 주변에서 다른 어떤 범죄 행위가 성행하는지, 이런 범죄상 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게 되는 등 책을 읽고 나서 갖는 후속적인 활동도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 활동을 하기 위한 책을 고르는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인 것도 중요하지만 독서 행위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후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합니다.

보도 새퍼의 “돈”이라는 책도 얻는 것이 많다는 점에서 추천합니다. 저와 같은 사회 초년생들은 금전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돈을 관리하고 굴리는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경제 관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의 현재 소비 습관과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이 두껍고 내용이 많아서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책을 전부 읽게 되면 얻어가는 것이 정말 많은 책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현재 적은 금액이지만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저의 투자 습관과 돈을 쓰는 습관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고쳐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의 저라면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저냥 저축만 조금 하고 사고 싶은 물건을 사고 먹고싶은 것을 사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을텐데 이 책을 접하고 나니까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는 데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책은 저처럼 돈 관리를 스스로 하는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자신의 경제 관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책이 두껍기 때문에 챕터 별로 나눠 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완독하는데 의미를 두고 책을 읽는다면 분명 느끼는 것도 많고 책에서 가져가는 정보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쓴이도 금전에 관해서 실패했다가 성공했던 경험이 있는 케이스로 자신의 경험에 빚대어 책을 썼기 때문에 그냥 있어 보이게 쓴 것이 아닌 실제 경험담이라고 생각하면 몰입도도 올라가고 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보장된다는 사실도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 중 한 가지입니다.

이\*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보도 새퍼의 ‘돈’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줄 수 있는 책'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밝히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무의식 속에 있다면, 이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돈을 밝히면 안 된다.',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다.'와 같은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돈에 대한 편견을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돈이 인생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돈맹에게는 미

래가 없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책은 경제 공부에 입문하는 책으로 적합합니다.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투자, 저축, 소비 등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는 보다 안정적인 재무 관리를 도와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2. 북클럽 활동 소감 공유하기

권\*운: 사실 이번 활동 이전에 고등학교 생활에서 책을 읽을 기억이 많이 없다. 중학생 때는 도서관 대출 횟수 3위를 하는 등 책을 많이 읽으려 노력했는데 고등학교를 오니 책일 거의 읽지 않은 것 같다. 그렇기에 이번 활동을 하면서 다시금 독서의 중요성을 깨달게 되었다. 이번 북클럽 활동을 하면서 가상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과 모여서 독서 관련 대화를 하는 것이었다. 항상 독서를 하고 독서 감상문을 쓰는 활동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닌 나 혼자서 생각하고 나 혼자 작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북클럽 활동은 서로의 감상문, 활동문을 듣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등 혼자서 책을 읽을 때 느낄수 없는 혹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관점을 다르게 해석하게 할 수 있었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전공인 환경과 관련한 책을 함께 읽음으로써 내가 왜 환경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환경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같은 팀원에게 설명해주면서 함께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좋았다. 마지막으로 거의 주에 한권씩 읽는 스케줄임에도 잘 소화 해주고 열심히 참여해준 조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이\*윤: 일단 두 달 동안 북클럽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팀원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북클럽 전에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니라 기간 내에 책을 읽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멤버 모두 1학년이고 멤버 수가 3명이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비우스 북클럽을 통해 멤버들과 의견을 나누고 소통했던 시간이 너무 뜻 깊었습니다. 두 달 동안 6권의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더 있을까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또, 북클럽 활동을 하면서 나의 나쁜 회화 습관을 조금이나마 고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활동했던 멤버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담: 이번 7주차 활동을 마지막으로 두 달 동안의 심비우스 북클럽 활동이 끝났습니다. 첫 비교과 활동인 만큼 부족한 점도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남는 것이 많았던 활동인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책을 읽고 후에 책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조원들과 얘기해보면서 책의 내용을 심화시키는 후속적인 활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평소 우리가 책을 읽

을 때는 읽는 것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심비우스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읽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더 발전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읽지 않았던 저를 반성하게 만들고 더 효율적이고 좋은 독서 습관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비록 심비우스 북클럽 활동은 끝났지만 심비우스 활동을 하면서 얻었던 좋은 습관이나 생각들은 활동이 끝나도 계속 잊지 않고 가져갈 것 같습니다. 비록 한주에 한권이라는 어찌면 적은 권수의 책일지 모르지만 성인들은 한달에 두권 읽기도 버겁다는 책을 두달동안 여섯권이나 읽고 이에 대한 심화 활동을 진행한 조원들에게 북클럽 활동이 저와 같이 의미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30일

참가자대표 : 이\*윤